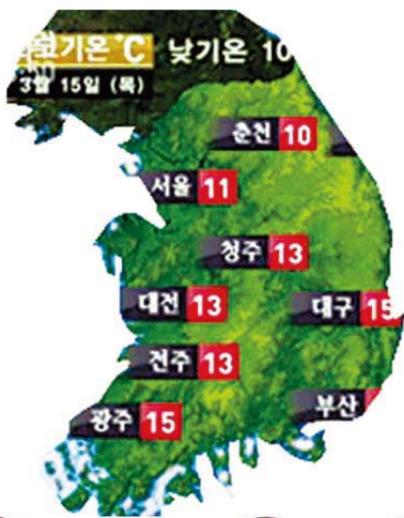


미모 앞세운 시청률 경쟁에 '예보'는 안들려

'노란조끼 보디가드' 밤길 무섭지 않아요



국내 한 포털 사이트 창에서 6일 '기상캐스터'를 검색했다. 가장 먼저 뜨는 연관검색어는 '기상캐스터 글래머'. 4번째로는 '기상캐스터 방송사고', 8번째로 '기상캐스터 초미니'가 떴다. '노출' '섹시' 같은 주로 여자 연예인들의 연관검색어에 자주 오르내리는 민망한 단어들이 기상캐스터 옆에 붙어 있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상캐스터는 무릎 선까지 내려오는 단아한 치마를 입고 깔끔한 단발머리나 올림머리를 해왔다. 20년 전 기억 속엔 남자 기상캐스터들이 훨씬 더 많았다.

과거 날씨 정보를 전하던 방송인 기상캐스터가 최근 지나치게 '연예인화' 되면서 시청자들이 정보

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눈앞에서 돌린다. 비키가 전하는 날씨 정보는 온도, 비·눈 여부 등 기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면 생활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강화했다는데 황사가 온다는 예보를 하면서는 스킨카프를 쓰고 '영화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햅번 룩을 연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한다. 이러한 날씨 방송에 시청자들의 호불호가 갈린다. "시대가 변했으니 뉴스도 변해야 한다" "생활정보도 알 수 있어 보는 재미가 있다"는 의견과 "뉴스가 예능인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 부딪힌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는 지역방송국, 라디오 방송 인원까지 합쳐 300여명으로 추정된다. 날씨 방송이 인기를 끌고,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의 날씨 뉴스가 생기면서 기상캐스터의 숫자도 쑥쑥 늘고 있다. '기상캐스터=방송인의 등용문'이라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면서 지원자들은 물리는 상황이다. 한 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 2명을 뽑는다는 공채를 냈더니 1200명이 지원했다는 얘기도 있다.

기상캐스터의 경우 추천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상캐스터 지원자들은 주로 야나운서 지원준비와 함께 방송 아카데미를 다니며 추천을 받아 방송사와 계약하게 된다. 공채모집을 하는 경우에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카메라에 비춰지는 이미지, 스피치 능력 등을 보는 카메라테스트가 전부다. 필기시험이나 학교 성적 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즉 많은 지원자들이 기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기상캐스터가 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관련 자격증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캐스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상캐스터 전문 특강이 하나 둘 생겨나는 추세다. 시장이

거지자 기상캐스터 육성만 전문으로 하는 기상아카데미도 최근 신설됐다. 이 학원의 경우 전 기상청 대변인이 학원을 열어 전문성을 기른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하고 기상캐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조용문(23·여)씨는 야나운서 준비를 위해 방송아카데미를 수료한 뒤 최근 기상아카데미에 등록했다. 조씨는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기상캐스터)지망생들이 거의 날씬하고 예뻐서 느끼는 압박"이라며 "뉴스가 예능프로그램도 아니고 주 시청 연령대도 높은 편인데 너무 외모 중심으로만 가는 추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런 식이면 전문 방송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기상캐스터로 연예인을 쓰는 마당에 야나운서도 연예인을 데려다 쓰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현지 기상캐스터는 "기상캐스터에게는 예보문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데 요즘은 서류심사에서 미인대회 출신자만 걸러 내는 상황"이라며 "기상캐스터 자체를 연예인화 시키다보니 직업 전문성이 점차 떨어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재채보다 기상캐스터의 의상이나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시청자들의 요구와 시청률 경쟁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퍼져나갔다. 케이블·종합편성채널 방송사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는 기상캐스터를 대놓고 시청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날씨방송을 봐도 날씨가 들리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올 법하다. 실제로 지난 4월 8일 종합편성채널 JTBC는 걸그룹 달샤벳의 전 멤버 비키(본명 강은혜·25)를 기상캐스터로 발탁했다. 비키는 다른 기상캐스터보다 몸집이 많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과 함께 얼굴 옆에서 주먹을 쥐었다 편다. "날씨를 살펴볼까요"라는 멘트와 함께 엄지와 검지 손가락

지난 5일 밤 11시 서울 마포구 합정역 8번출구 앞. 귀가를 서두르는 발길 사이로 노란색 조끼와 모자를 착용한 두 사람이 아이의 손을 잡은 한 여성에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안심귀갓길' 신청하신 김주리(37·여)씨 맞으시죠?". 잠시 경계하는 듯한 모습의 여성은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신분증을 보인 두 사람은 집에 이르는 동선을 확인하고, 이 모자의 2m 뒤에서 주변을 살피며 경호하듯 '수행'한다. 그들의 등 뒤로 '여성 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목에는 신분증과 함께 호루라기가 걸렸고, 손에는 어둠을 밝히는 경광봉이 깜빡인다. 서울시가 '여성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이번달부터 선보이고 있는 '여성 안심귀갓길' 요원들이다.

양화대교 방면으로 걸으며 진입한 거리에는 별다른 행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 거리 양쪽을 채운 점포들의 네온사인인 왕복 2차선 거리를 밝힌다. 간간히 라이트를 켜 차량이 오가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이 보이는 전부다. 뒤를 따르는 스카우트와 신청자 사이에도 주고받는 대화는 드물다. 신청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귀가 중 대화는 최소화하는 게 근무수칙이라는 말이 돌아온다.

엄마 옆에서 종종걸음을 한 개구쟁이 꼬마가 한 번씩 장난 어린 몸짓을 보이지만 이내 일행과 발을 맞춘다. 주책가 사이로 취기가 담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두 명의 '경호원'과 함께 거리를 지나는 모자(母子)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시선도 따른다.

그렇게 네 사람이 귀갓길을 동행한 시간은 15분여. 집 앞에 발걸음을 멈춘 김 씨가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인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주민들께도 안심귀가 서비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라며 작별을 고한 스카우트들은 잠시 집 앞에 머물며 신청자의 귀가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귀가지원은 마쳤지만 이들의 임무가 끝난 건 아니다. 한 조를 이룬 정희석(42·남)·박홍려(66·여)씨는 골장 담당구역 내 순찰을 위해 걸음을 옮긴다.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곳에는 어김 없이 순전등을 비춰 경계한다. 학교와 공터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만한 곳에서 순찰을 늦추며 살핀다. 어둠 속 거리 곳곳이 순찰의 사각지대인 만큼 주변을 세심히 살피

는 것 역시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 중 하나다.

사흘 째 근무를 마무리하며 정씨는 "이 일대 대부분이 좁은 주택가다 보니 우범지대 역시 적지 않다"며 "귀가를 지원하고 순찰을 돌면서 주민민원을 받아 구청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안심귀갓길'은 오는 11월까지 계속된다. 15개 시범자치구(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강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에 30~40명씩 배치돼 활동 중인 총 495명 스카우트들은 여성들의 안전귀가 지원과 주변 지역 순찰 임무를 부여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주중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 '120 다산콜센터'나 거주지 '자치구 상황실'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6개월간의 시범운영 이후 성과 및 시민응답도 등을 종합해 향후 대상지역과 투입인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 5월 25일 "2013미스코리아"에 참가한 후선인들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해양공원내에서 경선에 참가할 포스터촬영을 했다. 후선인들은 섹시한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에서 각자 자신의 풍채를 나타냈다. 미스코리아 선발은 올해에 이르기까지 이미 57기를 거행했으며 이번이 미스코리아 초선은 다음달 4일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막을 열게 된다.

"2013미스코리아" 포스터 촬영

▲ 5월 25일 "2013미스코리아"에 참가한 후선인들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해양공원내에서 경선에 참가할 포스터촬영을 했다. 후선인들은 섹시한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에서 각자 자신의 풍채를 나타냈다. 미스코리아 선발은 올해에 이르기까지 이미 57기를 거행했으며 이번이 미스코리아 초선은 다음달 4일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막을 열게 된다.

학교서 스마트폰 못쓰나...사용제한법 추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추진된다.

7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에 '학칙에는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를 이용

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등 학교 내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며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교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미인성형외과
GANGNAM MIIN
PLASTIC SURGERY

한민족신문 제휴 병원

나만의 강남스타일!

나는 나의 Stylish!!

제한중국동포들에 특별한혜택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키로

1 나만의 Style 섹션 만들기
Fitting 눈성형, 코성형, 쌍구 이마 만들기, V-라인 만들기, 탄력 있는 피부 만들기

2 동안 만들기 PROJECT
간단 동안 성형, Ten 10성형, 특별한 주사·스컬트라

3 실루엣 바다라인 만들기
가슴성형, 지방흡입, 복부성형, 여성성형

진료시간 안내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3시

전문상담
02)522-0522
010-2907-1082

오시는 길
지하철3호선 압구정역4번출구로 나오셔서 곧바로 우측으로 오시다(10m) 첫번째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50m 오시면 강남미인성형외과가 보입니다.